홍상수 감독作 '밤의 해변에서 혼자' 주연 **김민희**

제67회 베를린영화제 韓 첫 여우주연상 수상

"누군가에 가슴 깊은 울림 되길" … 내달 국내 개봉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주인 공을 연기한 배우 김민희가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이 영화제 역사상 한국 여배우가 본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영화 '원초적 본능'의 저명 감독 폴 베호벤이 이끄는 심사위원단은 18일 저녁(현지시간) 홍 감독의 19번째 장편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주인공 '영희' 역할을 소화한 김민희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민희는 공식경쟁 부문에서 다른 17편과 경합한 이 영화에서 유부남 영화감독과 불륜의 사랑에 빠졌던 여 배우 '영희'를 열연했다. 극중 영희는 독일 함부르크와 강릉에서 지인들을 만나 사랑과 삶에 관해 질문하고 번 민한다.

영화는 무엇보다도 홍 감독과 김민희 씨의 현실과 오 버랩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데다가 영희와 유부남 영화 감독과의 관계에 대한 세상의 시선에 강하게 반론하는 극중 인물들의 대사가 여러 군데 나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두 사람은 작년 6월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지난 16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장 등 공식석상에 함께 등장해 서는 보란듯이 친밀한 스킨십을 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 여 흥미를 유발했다.

김민희는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는 "감독 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너무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 주신 홍상수 감 독님께 감사드린다. 누군가에게는 이 영화가 가슴에 깊 은 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영화제에서 별처럼 빛나는 환희를 선물 받았다고"라며 울먹였다.

김민희는 "좋은 감독과 좋은 작품을 하는 것이 영 광"이라고 말했다. 객석의 홍 감독은 박수를 치며 미소 띤 얼굴로 수상을 축하하는 모습이었다.

또 18일 밤(현지시간) 기자회견장에서는 김민희는 주인공 '영희'의 캐릭터 이해와 연기 태도에 대해 "중요

하게 생각한 것은 진짜 사랑을 찾으려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면서 "(영희가)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영화 작업 을 하는 것에) 큰 힘이 됐다"면서 "감독님은 항상 저에 게서 '최고'를 끌어내 주셨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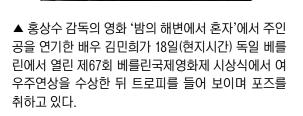
김민희의 국제영화제 수상은 그의 연기 인생만큼 드 라마틱하다. 큰 키와 개성 있는 얼굴로 잡지와 CF 모델 로 먼저 이름을 알린 김민희는 1999년 드라마 '학교 2' 로 연기자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2002년 '순수의 시 대'로 첫 주연을 맡았지만, 연기력 논란에 시달려야 했 다. 그 뒤로도 여배우보다는 '패셔니스타' 등 모델 출신 이미지가 더 강했다. 그러나 2008년 '뜨거운 것이 좋아' 에서 가능성을 드러내더니 2012년 변영주 감독의 '화 차'를 통해 진정한 배우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민희는 '화차'로 제21회 부일영화상 여우주연상, 2013년 '연애의 온도'로제49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김민희는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서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아가씨 히데코 역을 맡아 호연하 면서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칸 영화제 진 출 당시에도 여우주연상 수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 쳐지기도 했다.

한국영화가 칸, 베니스, 베를린 등 이른바 3대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배출한 것은 2007년 칸영화 제를 빛낸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 이어 10년만이다. 30 년전인 1987년에는 강수연이 '씨받이'로 베니스영화제 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홍 감독은 2008년 '밤과 낮', 2013년 '누구의 딸도 아 닌 해원'에 이어 3번째로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에 진 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상이든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섞인 관측이 나왔었다.

MBC



홍 감독이 3대 영화제에서 자신의 작품과 관련해 수 상 영예를 안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0년 영화 '하 하하'로 칸 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시선' 대상을 탔다.

한국영화는 1961년 강대진 감독이 '마부'로 베를린 영화제서 특별은곰상을 탄 것을 시작으로 3대 영화제

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상을 받았다. 특히, 베를린영화제에선 장선우 감독이 1994년 '화 엄경'으로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2004년에는 김기덕 감 독이 '사마리아'로 감독상을 받았다.

2005년에는 임권택 감독이 해마다 중요 영화인들에 게 수여하는 명예황금곰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7년에 는 박찬욱 감독이 '싸이보그지만 괜찮아'로 알프레드 바우어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알프레드 바우어상 은 가장 혁신적인 영화에 주는 상. 2011년에는 박찬욱 감독이 동생 박찬경과 함께 만든 단편 '파란만장'이 단 편 경쟁부문 황금곰상을 받기도 했다.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다음 달 국내 관객을 만 난다. 영화 홍보사 무브먼트 관계자는 19일 "'밤의 해 변에서 혼자'가 3월 개봉한다"며 "홍상수 감독이 귀국 하면 개봉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개봉에 앞서 홍 감독과 주연인 김민희가 국내 언론과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다. 통상 감 독과 배우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 나 극장 무대 인사 등을 하지만, 불륜설에 휩싸인 두 사 람은 지난해 11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개봉 때도 공 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원로 배우 김지영 별세

2년간 폐암 투병 급성 폐렴으로 숨져 마지막까지 연기 활동

원로 배우 김지영 씨(사진)가 19일 오전 6시51분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의 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 화에서 "엄마가 2년간 폐암으로 투병 했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투병하면서 도 연기활동을 이어가셨다"면서 "그 러다 지난 17일 급성 폐렴이 오면서 결국 오늘 숨을 거두셨다"고 밝혔다.

고인은 최근에도 드라마 '여자를 울 려' '판타스틱' 등에 출연했고, 차기작 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딸은 "두 달 전 호스피스 병 원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봄에 새로운 작품을 해야 한다고 다리 운동을 하는 등 삶의 의지를 불태우셨다. 5월에 새 로운 작품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백전노장'이었다. 서민층부 터 거부까지, 다정다감한 캐릭터부터 악녀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펼

한국전쟁 직후인 1952년 악극단 생 활을 시작으로 연기에 뛰어든 고인은 1960년 '상속자'로 영화계에 데뷔하면 서 TV와 스크린을 종횡무진 오갔다. 조연에 머물던 그는 노년에 더 이름을

100여 편의 영화와 그보다 훨씬 많 은 드라마에 출연해온 그의 대표작은 연기 인생 후반부에 몰려있다. '바람 은 불어도' '장미빛 인생' 등의 드라마 와 '해운대' '국가대표' '마파도2' '아 라한 장풍대작전' 등 영화에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또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커피하 우스' '별을 따다줘' '반짝반짝 빛나 는' '금 나와라 뚝딱' '트라이앵글' '식 샤를 합시다2' '여자를 울려' '판타스



틱' 등 드라마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까지 왕성히 활동했다.

그는 특히 사투리 연기에서 독보적 이었다. 방송가가 인정하는 팔도 사투 리 연기의 대가다.

서울 토박이인 그는 생전 연합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사투리는 지방을 다니면서 틈틈이 익혔다"며 "시청자 께 보답하려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연마했다. 시 청자나 관객이 '그 할마시 때문에 오 랜만에 제대로 된 고향 말 들어보네' 라고 한다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딸은 "엄마가 폐암을 숨기 고 연기를 하느라 굉장히 힘들어했다. 최근작에는 유난이 얼굴이 부어 보이 게 나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그러나 배우를 천직으로 사셨던 분이라 끝까 지 연기를 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같은 여자로서는 자식 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안타까웠으나, 한 인간으로서 엄마를 너무나 존경했 다"면서 "우리 엄마지만 정말 누구보 다 열심히 사신 분"이라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하나, 딸 셋이 있 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 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TV 프로그램

20일

KBS1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C / SBS

		VD91	NDOZ	IVIDC	VDC / 2D2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아침연속극 〈아임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공감(재)	00 월화드라마 〈화랑〉(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30 꾸러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50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Đ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밥상의 전설 55 명인 (재)	00 이웃집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2	45 콘서트필		00 키즈사이언스6	
	3	35 공감다큐, 사람 55 감성애니 하루 (재)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4	00 4시 뉴스집중	10 사람과 사람들 (재)	25 일일연속극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꼼지락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은수	30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55 제보자들	55 일일연속극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OO MILME	30 리얼스토리 눈	00 027 CC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화랑〉	0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미니시리즈 〈피고인〉
(i)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걸작드라마〈리썰웨폰〉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길	10 초인가족 2017 (1~2회)
(12	30 101세의 프러포즈 (재)	35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3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재)

KBS2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프랑스 와인기행 - 부르고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뿡뿡이 09:15 출동! 슈퍼윙스 09:30 이얍!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재) 〈콩나물 김칫국과 잔멸치 마늘종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하국에 산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55 시계마을 티키톡! 19:30 FBS 뉴스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왕돌초의 축복, 대게〉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20:50 세계테마기행 15:35 요술 상자(2) 〈미지의 낙원, 카나리아 제도 - 축제의 섬, 그란카나리아〉 15:45 출동! 슈퍼윙스 16:15 방귀대장 뿡뿡이(재) 21:30 한국기행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겨울 산중 별난 인생 - 수상하 동거〉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21:50 EBS 다큐 프라임 17:45 꼬마버스 타요(재) 〈강은 혼자가지 않는다〉 22:45 달라졌어요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8년생 당치도 않으니 꿈도 꾸지 말라. 60년생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72년생 막연하다면 실수가 잦을 것이니 상관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84년생 함께하되 굳이 상호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67, 26



49년생 효과가 커진다. 61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에 정답이 있음 을 간과하지 말라. 73년생 자신이 해결할 역량이 충분하니 굳이 남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85년생 어떠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판 도가 달라진다. 행운의 숫자 : 35, 25



50년생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62년생 무 리하면서까지 억지로 행할 필요는 없으니라. 74년생 상대를 먼 저 파악해야 완벽하게 대처하리라. 86년생 측면에 따라 연쇄적 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0,89



51년생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63년생 눈에 띄는 하자가 있으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75년생 부드러운 운 세다. 87년생 기본적인 관계와 입지를 중시한다면 어떠한 난관 도 피해 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6,52



52년생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좌우될 것이니 과정 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크다. 64년생 나타나는 효과가 커진다. 76년생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되는 면모이니라. 88년생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6, 17



53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65년생 하 찮게 여겨 왔던 바가 행운과 연결되는 형국이다. 77년생 초기에 는 영세하나 나중에는 성황을 이룬다. 89년생 무엇보다도 안전 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88,97



午

42년생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반드시 빈틈을 보이게 되어 있다. 54 년생 대국적으로 임해야 실속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다. 66년생 상실감에 빠진다. 78년생 도움이 될 것이니라. 90년생 간절히 필 요로 했던 이가 스스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79,49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월 20일(음 1월 24일 戊寅)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43년생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느니라. 55년생 상호 간에 이해하 면 모든 것이 풀리리라. 67년생 가급적 상대에게 맞추어 주는 것 이 현명하다. 79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91년생 본격적인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80,45



44년생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56 년생 무의미하다면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68년생 특별한 인 연을 맺게 될 수도 있느니라. 80년생 서로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행운의 숫자 : 43,61



45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57 년생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명적인 단계에 놓여있다. 69년생 제때를 만났으니 힘껏 내달려야만 한다. 81년생 다시 없이 큰 복 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7, 14



46년생 다소 자극을 줄 필요는 있다. 58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에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70년생 입장에 따라서 얼마 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82년생 중요한 일을 단행해도 무리 가 따르지 않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3,55



47년생 단순하거나 감각적인 판단은 오류를 부를 것이니 다자 관계를 염두에 두고 처리하라. 59년생 분수와 격에 맞아야 순조 로울 것이다. 71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오리라. 83년생 상대적 편 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73,3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